

## 세계 최초 2단냉각방식 '95년형 입체냉장고 개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기존 냉각기가 1개인 냉장고와는 달리 주냉각기 외에 예비 냉각기 1개를 설치함으로써 냉동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성에 제거 시간을 1/5로 단축, 냉동실 온도변화를 최소화하여 정온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95년형 입체냉장고 「탱크」를 개발, 1월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대우전자가 냉장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3년에 걸쳐 총 103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박사 5명 포함 43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서울대 신소재연구센터, 이화여대 식품영양연구소 등과 산학협동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이 신형 냉장

고는 2개의 냉각기를 채용하여 열교환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 냉각성능을 혁신했을뿐 아니라 기존 냉장고의 가장 큰 단점인 성에 제거시 냉동 실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냉동식품 보관기간을 2배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일반 냉장고가 성에제거시 냉동실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에서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까지 급상승함으로서 냉동식품의 해동과 냉동을 반복케하여 장기보관 식품의 변질, 변형, 냄새배임 등이 발생하는데 비해 이 냉장고는 성에 제거시에도 냉동실의 온도를 영하15도 이하로 유지, 정온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 고화질 컬러TV개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화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TV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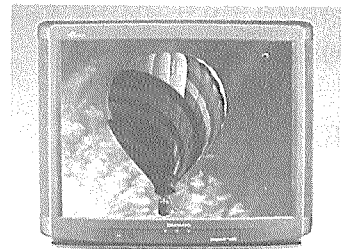
대우전자는 오리온전기와 함께 3년간 모두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자연색에 가까운 색상구현은 물론 선명한 명암을 즐길 수 있는 「임팩트 개벽TV」를 개발,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우가 이번에 발표한 제품은 브라운관에 적색·녹색·청색의 색재현 범위를 넓힌 신 블루형광체를 비롯해 최대 라운드타입의 대구경 전자총, 자성체를 입힌 MAC (Magnetic Astigmatism Correction) DY(편향요크)를 채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CTI(색

경계 개선) 회로와 화질보강회로, 영상잡음기능 등 화질을 좋게 하는 모든 기능을 보강한게 특징이다.

또 화면의 대각선, 가로와 세로, 상하측 끝과 좌우측 끝 등의 브라운관 평평도를 2.0R로 설계,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화면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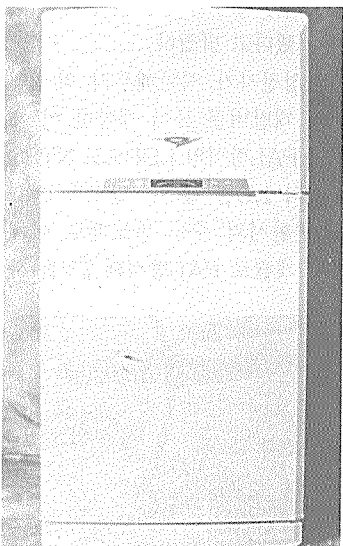
임팩트개벽 TV는 이외에도 고음과 저음을 유효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돔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해 고성능 스피커 박스를 브라운관 뒷면에 설치해 슬림형으로 만들었을 뿐아니라 공간절약형 디자인을 도입, 21인치 공간에다 25인치 TV를 놓을수 있도록 했다.



## 교환기 및 통신기 부문 ISO 9001 인증 획득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이 영국의 SGS 아슬리(Yarsley)로부터 교환기 및 통신기 부문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0 시리즈는 국제표준 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인증 제도로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분야가 제외되어 있는 ISO



9002를 획득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우통신이 획득한 ISO 9001 인증은 생산은 물론 연구개발 및 영업·서비스 등 전과정을 포괄하여 품질시스템을 보증하는 것이다

대우통신은 지난해 PC부문에 서 ISO 9001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교환기 및 통신기 부문에서도 인증서를 받음에 따라 교환기, 디지털전송장치, 광가입자장치, 각종 전송로 감시제어장치 등 정보통신부문 생산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우통신은 이번 정보통신부문의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전략품목인 전자교환기 등의 수출추진에 한층 유리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 FDD 사업 대폭 강화 삼성전기(주)

삼성전기(대표 이형도)가 올 1월부터 그룹사인 삼성전자로부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사업부문을 이관 받는데 이어 핵심부문의 헤드의 자체개발에 성공, 양산을 추진하는 등 관련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초부터 삼성전자의 FDD영업부문을 넘겨 받고 오는 4월부터는 생산라인까지 완전히 이관받아 완제품 공급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특히 FDD시장 진출을 겨냥해 FDD 헤드 국산화를

완료, 최근 최대 수요처인 삼성전자의 승인을 획득하고 이달부터 우선 월 5만개부터 생산을 시작, 연말까지는 월 10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사업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할 FDD에도 자체생산한 헤드를 채용할 계획이다.

동사는 특히 FDD의 경우 헤드를 포함, 모터·PCB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를 이미 완료,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췄으며 단품 수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양산 돌입과 동시에 수출용 모델을 개발, 해외시장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비 메모리사업 강화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반도체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전제품용 반도체 분야의 핵심공정 및 관련제품 개발을 위해 도시바와 상호협력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 합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도시바에 메모리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도시바는 삼성에 비 메모리 제품생산의 주요 공정기술인 바이폴러 공정과 고화질 TV용 원 칩 IC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삼성·도시바간 전략적 제휴는 지난 '92년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제휴와 '93년 LCD 구동 IC 공동개발 합의에 이은 세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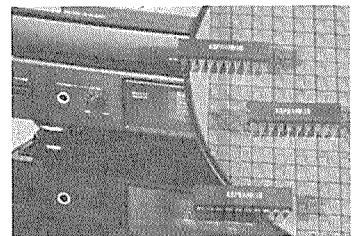
제휴로 양사는 향후 연구 및 생산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삼성은 이번 도시바의 바이폴러 공정 기술이전을 통해 가전용 반도체의 고기능화·고집적화 및 저전력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가전용 반도체의 개발 및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중간주파수대의 영상 및 음성신호 처리기능, 동시신호 위상분리 및 처리기능 등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 시킨 고화질 TV용 원 칩 IC를 개발, 비 메모리 사업 강화는 물론 가전부문의 기술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LDP용 ASIC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멀티방식 LDP의 핵심부품인 「색 신호 변환 주문형반도체(ASIC)」를 개발, 자사 수출용LDP에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약 3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PAL방식의 LDP로도 NTSC 방식의 LD를 볼 수 있도록 색조를 변환시켜 주는 반도체로 이 제품의 개발로 PAL방식의 TV를 사



용하는 동남아나 유럽 지역에서 NTSC방식의 LD를 손쉽게 재생해 볼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또한 기존 컬러신호 입력 및 출력, 신호전환기능 등 각 기능을 수행하던 3종의 반도체를 원칩화시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고 원가절감을 실현, LDP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이 제품이 특히 입력되는 신호를 2배에서 4배까지 증폭시켜주는 컨트롤 앰프를 내장, 선명한 컬러를 재현시킬 수 있어 고화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격자동 컴퓨터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원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직접 작동시키고 팩스 송수신 등 각종 통신기능이 강화된 자택근무형 「그린Ⅳ」 6개 모델을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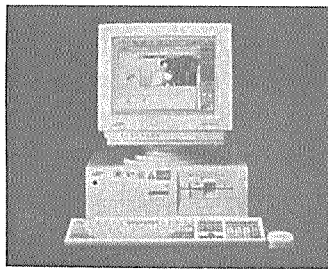
이 제품은 통신을 이용, 원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직접 작동, 각종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실행시키고 파일 송수신도 할 수 있어 먼곳에 출장갈때도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없이 현장의 PC에서 직접 연결,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개발관계자는 「리모콘」이라는 원격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 장착했다」고 말하고 「외부에서 컴퓨터를 연결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들

실행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그린Ⅳ」는 14.4Kbps의 초고속 팩스모뎀을 내장, 팩스 송수신 기능을 지원해 윈도우 환경에서 작성된 어떤 형태의 문서도 간단히 송수신 할 수 있고 전화자동응답 및 음성사서함 기능, 삐삐 호출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하이버네이션 기능을 보장, 팩스·모뎀에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 신호가 들어오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상복원시키는 「오토매틱 웨이크업」기능과 함께 메인메모리가 기본 8MB에서 64MB까지 확장 가능하고 VIP버스를 채용, VESA, ISA, PCI 등 3가지 버스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등 확장성이 큰 것도 장점이다.



## 산업용 감시카메라 개발 삼성항공산업(주)

삼성항공(대표 이대원)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산업용 감시카메라(모델명 SFA-410ED)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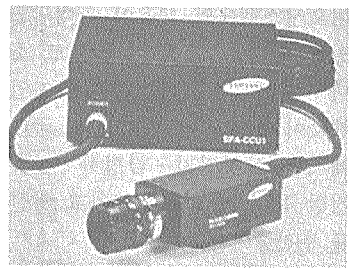
삼성항공이 지난 1년동안 4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자체기술로

개발한 이 카메라는 랜덤트리거, 센터마크 등 기존제품에는 없었던 기능을 탑재했으며 전자조리개 5만 분의 1초, 수평해상도 570TV본, 41만 화소를 갖추고 적외선 필터를 사용해 사람의 눈과 비슷한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은 이 카메라를 칩마운터, 자동검사장치, 화상입력기능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장자동화기기에 장착할 경우 육안으로 알 수 없는 제품의 이상유무를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항공은 이 감시용 카메라에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반도체 칩을 적용, 소형화하고 경량화함으로써 제작비용도 줄였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카메라는 산업현장용은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돼 사용되고 있다.



## 자동차용 CD체인저 양산 새한정기(주)

새한정기(대표 안용수)가 6장

의 CD를 연속으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용 CDP테크(일명 CD체인저)를 국내 최초로 본격 양산한다.

동계품을 개발한뒤 그동안 양산을 계속 미뤄왔던 새한정기는 지난해말 일본 소니사와 핵심부품인 레이저 픽업 수급문제를 타결. 이달부터 CD체인저의 양산에 들어갔으며 당분간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우선 현 구로공장생산라인을 이용, 1월말까지 1천대를 처음 생산해 일본지역에 수출하고 2월에는 3천대, 4월부터는 5천대수준으로 생산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6월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95동계 CES」에 외국바이어의 브랜드로 CD체인저를 출품, 미주지역바이어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CD체인저는 대형오급차의 오디오시스템에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첨단 테크메커니즘으로 소니·산요·JVC 등 일본 가전업체들이 주로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금성사·신홍정밀 등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추진중이다.

## 미국에 오디오 합작 공장 설립 (주)인켈

(주)인켈이 세계적인 오디오 메이커인 미국 하만그룹과 공동으로

첨단오디오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연구소와 합작공장을 미국에 설립했다.

인켈은 자사의 최석한 사장과 하만그룹의 토머스 자코비 사장이 지난 1월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술연구 개발 및 제조·판매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미국에 기술개발연구소와 첨단 오디오 합작공장을 연내에 설립, 각사의 상호로 전세계에 판매기로 했다.

인켈은 특히 하만그룹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천안공장 준공에 맞춰 국내생산할 방침이며 이 회사의 유명브랜드인 JBL 스피커도 독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인켈은 이번 계약체결로 신제품 개발 및 최신정보수집, 한미간 기술협력 관계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켈은 하만그룹과 지난해 1,700만 달러, 올해 2,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각각 체결한데 이어 내년에는 5,000만 달러, 97년

에는 1억 달러 어치를 공급할 계획이다.

## 6각수 냉장고 시판 LG 전자

LG전자가 「6각수(角水)」를 만드는 장치를 내장한 냉장고 신제품(모델명: 6각수 냉장고)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동사는 6각 분자구조의 물이 인체와 동식물에 노화 억제 등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학계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내수·수출용 냉장고 전략상품의 주성능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각수 냉장고는 냉장실 안에 설치된 두개의 특수제질 물통에 수돗물·보리차·생수 등을 넣고 작동버튼을 누르면 물통밑의 자성(磁性)장치가 작동, 세시간 후에 6각수로 바뀌어진다.

동사는 부산수산대·경상대 등 학계와 함께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자사냉장고가 만든 6각수를 실험



용 위에 투여한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 등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연구 과정에서 LG는 수소이온농도(PH)변환장치·자화(磁化)6각수 제조법 등 총 141건의 기술을 개발,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 특허 출원했다.

## CD-I 사업 활성화 LG전자

LG전자(대표 이현조)가 CD-I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1월 1일 디스크 미디어 SBU산하에 CD플레이어 OBU를 신설하면서 올해를 「CD-I 사업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CD-I 타이틀 개발과 함께 니치(틈새) 마케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CD-I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타이틀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지난해말 개발한 CD-I타이틀을 대량으로 구입한데 이어 최근 중소 업체들의 CD-I 타이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비 전액지원 등 자금지원을 확대, 유아학습과 영어회화 등 교육용 타이틀 30여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계열사인 LG미디어를 통해 「서드프리트」를 구성, 타이틀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대교컴퓨터·한국3-1·디지털임팩트·ESPK·토러스미디어 등 5개 중소 개발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LG전자는 멀티미디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한 특판영업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FDD시장 진출 모색 태일정밀(주)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이 중국에서 생산한 FDD의 국내 반입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태일정밀의 중국현지 법인인 뉴맥스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소니사의 태국공장에서 부품형태로 수입한 3.5인치 FDD를 조립 생산중이며 태일정밀은 이를 완제품형태로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맥스사는 아직 이 제품의 생산수율이 좋지 않아 시험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본격 생산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태일정밀의 한 관계자는 「FDD 국내 반입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현지법인인 뉴맥스사가 생산하고 있는 FDD가 일본 소니사의 FDD 주요부품을 조립한 제품이어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저축될 가능성이 높아 이의 해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FDD시장은 삼성전

지와 진해삼미 두회사가 장악하고 있어 태일정밀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복사기·프린터사업 강화 코리아 제록스(주)

코리아제록스(대표 문대원)가 올해 보급기와 고속대형기 등 복사기사업과 프린터사업을 대폭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올해 문서입력 및 출력과 관련된 사무자동화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종래의 복사기 전문업체라는 인식에서 탈피키로 했다.

코리아제록스가 발표한 '9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의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8,89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리아제록스는 올해 전체 복사기 내수시장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당 복사 속도(CPM)20~30매 수준의 범용복사기 신제품 3개 기종을 발표, 주력사업인 복사기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사는 또 보급기 신제품 발표와 영업지원을 강화해 올해 복사기 전체 시장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리아제록스는 이와함께 프린터를 복사기에 이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올해 2개 기종의 신제품을 발표, 전체 매출

액에서 차지하는 프린터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동사는 올해 프린터 매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40% 이상 늘어난 420 억원으로 잡고 있다.

코리아제록스는 이밖에 분당 복사속도 50매 이상에 제본 및 접지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고 있는 고속대형 복사기 사업에 주력해 장기적으로 이 부문을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멀티미터 사업 홍창물산(주)

홍창물산(대표 손정수)은 테스트류의 수요가 점차 고급화되는 추세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터의 개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온 이 회사는 지난해 저가형의 디지털 멀티미터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출용으로 고급기종(모델명 PD 456시리즈)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홍창물산은 이 모델들을 국내의 전시회에 출품,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창물산측은 자사의 제품들이 마이크로 콤팩 IC를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PC에 측정데이터를

입력해 디스플레이 및 파일저장,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덕턴스, 데시벨, 시그널, 타임기능 등 다른 제품에 없는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어 제품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 E-IDE 반도체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최근 컴퓨터의 PCI 및 VESA 버스 방식에서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E-IDE(Enhanced Intergrated Drive Electronics)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달중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 양산에 들어간 이 제품(모델명 HY34C110)은 기존의 IDE 방식보다 8배이상 빠른 초당 한글 8 백만자를 전송할 수 있는 16.6MB/초의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한 최대 8.4GB의 대용량 HDD를 지원하고 주변장치도 기존제품의 두배인 최대 4개 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CD롬 드라이브와 테이프 드라이브 등 다양한 주변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현대전자의 EIDE 칩 개발·출하는 기존 선진업체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비 메모리산업의 육성은 물론 멀티미디어

산업 등 관련 기기산업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세대 16MD램 양산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국내 업계 처음으로 「3세대 16MD램」의 본격 양산에 착수, 16MD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0월 표준 16MD램보다 줄인 3세대 16MD램의 자체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전자가 양산하는 새로운 16MD램은 칩 크기가 65mm<sup>2</sup>로 2세대(1백mm<sup>2</sup>)보다 30%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제품은 특히 64MD램 생산에 사용되는 0.4μm급 초미세 공정 기술을 응용, 여타 업체의 제품에 비해 제품특성 및 비용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사의 3세대 16MD램은 또한 공정을 최적화 시켜 5V 및 3.3V에서도 동작이 가능토록 만든 저전력 소모형으로, 기존표준형 D램중 가장 빠른 초당 100메가바이트의 전송속도를 갖춘 고속메모리 반도체이다.

## 국·내·업·계·소·식

#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창립연월일
(주) 서울미터산업	'82.2.1
이행전자공업(주)	'85.2.1
자화전자(주)	'87.2.1
한국성전(주)	'73.2.1
홍창물산(주)	'72.2.2
광림전자공업(주)	'75.2.4
한국후지쓰(주)	'74.2.6
한도전지(주)	'81.2.6
효성물산(주)	'57.2.6
(주)우주정밀	'87.2.9
국제전산(주)	'76.2.10
신영공업(주)	'78.2.10
(주)인터링크시스템	'89.2.10
인성전자(주)	'86.2.12
주원기전(주)	'87.2.13
한국전장(주)	'76.2.13
한도전자(주)	'81.2.13

회사명	창립연월일
신기산업(주)	'89.2.15
오리엔탈전자시스템	'84.2.15
두산전자(주)	'74.2.18
(주)선호전자통신	'85.2.18
나우정밀(주)	'81.2.19
화인음향(주)	'79.2.19
한국알프스(주)	'87.2.21
현대전자산업(주)	'83.2.23
L G 정밀(주)	'76.2.24
(주)성문전자	'84.2.24
진양공업(주)	'75.2.24
(주)한국성산	'87.2.25
우정전자(주)	'83.2.26
(주)한국전자진흥	'73.2.26
(주)센트로닉스	'84.2.27
서부산업(주)	'76.2.28
한국동양유전(주)	'76.2.28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분	이용요금	비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산자료과**

**TEL : 553-0941/7 (교 : 45)**